

2013년 제2차 광명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귀국 보고서



광명시의회

목 차

I. 개 요

□ 연수개요	3
□ 연수세부일정	4

II. 방문국가 주요 현황

□ 방문국 국기 및 지도	5
□ 방문국 일반현황	5

III. 주요 연수 결과

□ 주요 기관 방문

○ 이스탄불 한국전 참전 용사회 방문	10
○ 이스탄불 양로원 견학	12
○ 앙카라 직업훈련소 견학	14

□ 터키 역사유적지 현장 견학(시찰)

○ 이스탄불 역사유적지	16
○ 앙카라 역사유적지	24
○ 카파도키아 고대 자연유적지	31
○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고대도시	33
○ 에베소 로마시대 유적지	36
○ 트로이의 유적지	39

IV. 연수요약 및 성과	41
---------------------	----

2013년 광명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I 개 요

연수개요

1. 방 문 국 : 터 키

2. 목 적

- 지방자치시대 지방의원의 다각적인 견문과 체험을 통하여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행정제도 및 시설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 외국의 도시개발, 문화, 관광, 역사유적지 시설과 운영실태를 견학하여 외국의 마인드를 비교분석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여코자 함

3. 기 간 : 2013. 1. 28. ~ 2. 5. (6박 9일)

4. 방 문 자 : 시의원4명, 공무원 2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시 의 원	자치행정위원회	부 의 장	권 태 진	
		위 원 장	서 정 식	
		위 원	김 익 찬	
		위 원	고 순 희	
공 무 원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 주 무 관	정 순 진 박 주 경	

연수세부일정

월 일 (일차)	국 명 (도시명)	교 통	세 부 연 수 일 정
1. 28. (월) (1일차)	인 천	TK091	○ 인천공항 출발(TK091)
1. 29. (화) (2일차)	이스탄불	전용버스	○ 이스탄불 국제공항 도착 ○ 이스탄불 역사유적지 현장시찰 - 히포드룸, 블루 모스크, 성소피아, 지하저수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 이스탄불 한국전 참전용사회 공식방문
1. 30. (수) (3일차)	이스탄불 앙카라	전용버스 TK2170	○ 이스탄불 시청사, 이스탄불 양로원 공식 방문 ○ 이스탄불 역사유적(톱카프 궁전) 현장시찰 ○ 이스탄불 공항 출발-앙카라 공항 도착
1. 31. (목) (4일차)	앙카라 카파도키아	전용버스	○ 앙카라 기술직업 학교 공식방문 ○ 앙카라 역사유적지 현장시찰 - 소아시아 문명 박물관, 아타튀르크 영묘 ○ 6.25 참전 터키기념탑 (한국공원)
2. 1. (금) (5일차)	카파도키아 콘야	전용버스	○ 고대 자연유적지 카파도키아 시찰 - 데브렌트계곡, 파샤바계곡, 우치히사르, 피레메 야외 박물관, 지하도시 데린쿠유 등
2. 2. (토) (6일차)	콘야 파묵칼레	전용버스	○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고대도시 시찰 - 히에라폴리스 도시유적 ○ 파묵칼레
2. 3. (일) (7일차)	파묵칼레 셀쭉 아이발룩	전용버스	○ 에베소 로마시대의 유적지 시찰 - 원형극장, 셀수스 도서관, 시장터, 대리석 도로, 목욕탕, 아르테미스신전, 하드리아누스 신전 등
2. 4. (월) (8일차)	아이발룩 이스탄불	전용버스	○ 트로이의 유적지 시찰
2. 5. (화) (9일차)	이스탄불 인천	TK090	○ 이스탄불 공항 출발(TK090) ○ 인천공항 도착

II 방문국가 주요 현황

방문국가 국기 및 지도



방문국가 일반현황

1. 터키 개요

- 국 명 : 터키 민주공화국(TURKIYE CUMHURİYETİ)
- 수 도 : 앙카라(Ankara)
- 면 적 : 783,562km²(전체순위 37위 / 한반도의 3.5배 / 남한 8배)
- 국 기



터키 국민은 '달과 별'이라는 뜻의 아이 일디즈(ay yıldız)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피바다 속에 나타난 신비로운 달과 별을 가리킨다.

- 인 구 : 약 7,974만명(2012년 기준 / 전체순위 17위)
- 주요도시 : 이스탄불(Istanbul), 이즈미르(Izmir), 콘야(Konya)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대통령제 요소가 가미)
- 언 어 : 터키어, 아랍어 쿠르드어
- 종 교 : 이슬람교(99.8%)
- 통 화 : 터키 리라(TL)
- GDP(국내총생산) : 8,172억\$(2012년 기준 / 세계17위)
- 시 차 : 우리나라보다 7시간 느림
- 건 국 일 : 1923년 10월 29일
- 주요민족 : 터키인(80%), 쿠르드인(20%)
- 의회구성 : 총 550석, 임기4년
-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 위치에 있는 터키는 히타이트에서 로마, 비잔틴 제국, 오스만 대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거쳐간 곳이다. 초대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어 많은 성지순례자들이 터키를 찾음과 동시에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화려했던 이슬람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는 이슬람 국가로서 자리 잡았다.
- 터키는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나라로, 13세기 말 오스만투르크 제국(1297~1922)이 성립하였고 1922년 술탄제를 폐지하며 1923년 10월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며 건국되었고 1924년 칼리프제 폐지와 함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나라이다.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고,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적인 부침이 심했다. 이슬람 완조인 오스만 완조의 후계를 잇는 국가로 18세기에 오스만 왕국이 쇠퇴하여 다른 나라에 분리 점령되거나 통치, 관할되었고, 20세기 들어 공화국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행정구역은 81개주로 되어있다.
- 터키는 1950년 7월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고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1957년 3월 한국과 수교 이래 우리나라를 혈맹 우방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두 나라의 국민들간의 유대감이 더욱 확산되었다.

2. 정 치

- 터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의원내각제라 볼 수 있고 2013년 현재 대통령은 압둘라 귄(정의개발당)이며 2007년 8월에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 대통령 임기는 7년 연임제로 국민투표에서 절대 과반수로 선출한다.
- 국회는 단원제로서 5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요정당은 2011년6월 총선결과 정의개발당(326석), 공화인민당(135석), 민족행동당(53석), 무소속(36석)이다.

3. 경 제

- 터키는 서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근대화가 앞서 있으나 총인구의 약 70%가 1차산업 농목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민총생산의 34%, 수출의 약 83.7%를 농업이 차지한다. 경지면적은 2,660만 ha로 국토의 34%를 차지하나 대부분이 소농이며 농업기술이 뒤떨어져 생산성이 낮다. 주요농산물은 밀(90%), 보리, 옥수수이다.
- 터키의 주요공업은 섬유와 철강업이다. 섬유공업 중 견직공업이 부르사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에 의해 영위되고 면직공업은 주로 국영기업에 의해 영위되며 이스탄불, 이즈미르, 아다나 등이 주산지이다.

4. 지 리

- 유럽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의 총 면적은 783,562km²로 한반도의 3.5배이며, 동쪽으로 이란·아르메니아·조지아, 남쪽으로 이라크·시리아, 북서쪽으로 불가리아·그리스와 국경을 접하고 북쪽으로 흑해, 남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 에게해, 마르마라해에를 접하고 있다. 보스포루스해협, 마르마라해, 다르다넬스 해협을 경계로 아시아지역인 아나톨리아와 유럽지역인 트라케로 나뉘어 진다.
- 터키는 위치에 따라 흑해, 말마라, 에게해, 지중해, 중앙 아나톨리아, 동쪽 아나톨리아, 남동 아나톨리아의 7개 지역으로 나뉜다.

5. 기 후

- 지중해 연안지방의 전형적인 온난성 기후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터키의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변화무쌍한 기후대가 나타난다. 흑해 연안부의 따뜻한 기후와, 고산으로 가득한 산악지대의 설경을 볼수 있다.
- 또한,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나 국토가 넓고 복잡하여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며, 남부와 서부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고온건조하고 겨울에는 비가 자주 온다.
- 내륙의 고원지대는 한서의 차가 심하여 겨울에는-15℃, 여름에는 37℃를 넘으며, 강수량은 봄·가을에 많으며 연평균 203~304mm이다.
- 터키는 지진대에 속하며, 흑해·마르마라해·에게해 연안은 제1급 지진대, 이스탄불 지방은 제2급 지진대에 속한다.

6. 사회 & 문화

- 기록에 의하면 터키는 기원전 2000년, 중앙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였고, 터키의 조상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족으로 중국 사람들은 기원전220년에 수립된 터키의 테오만 야부그 왕국을 흉노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 오늘날 터키 국민들은 그들의 조상이 중앙아시아 동북부에서 기원하여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16개 군주국이 흥망을 거듭하여 터키인들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서기 10세기 경이라고 한다. 중세에 아랍지역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터키인들의 대부분이 회교로 개종하였으며, 아랍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 터키 국민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연 숭배사상과 풍습을 오늘날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풍습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한국어와 같은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터키어는 문장 구성순서, 모음조화, 어미 활용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과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다.
- 터키 주민의 대부분의 터키인(약86%)이며, 소수민족으로서 쿠르드인(7%)이 그리스인, 유대인,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이스탄불에 거주한다.

- 터키인의 윤리는 코란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고와 행위가 숙명론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공용어는 터키어이며 1928년 라틴문자가 채용되기 전까지 터키어는 아랍 문자를 사용하였다.

7. 종교 & 풍속 & 국민성

-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교도가 99.8%를 차지하며, 나머지 0.2%정도가 그리스도교, 유대교를 구성하며,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로 이슬람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 된다.
- 터키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속화된 나라로서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종교적 규율 적용에는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법률이나 사회기구가 이슬람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의 전통과 관행이 매우 중요시 된다. 회교 국가이나 토·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등 서구화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터키는 종교 공휴일로서 셰커르 바이람(Seker Bayram :Sweet Festival)과 쿠르반 바이람(Kurban Bayram : Sacrifice Festival)이 있으며, 매년 날짜가 다르다. 바이람 전 한달동안은 라마단(Ramadan)으로 일출부터 일몰시간까지 금식하는데, 가장 큰 종교 축제인 바이람 기간중에는 새옷을 입고 친척 방문 등을 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카드를 보낸다. 터키인들은 친족과 가족의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가장의 권위를 존중한다.
- 터키 국민은 오스만 제국의 영광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히 크며, 한국전쟁시 참전으로 맺은 인연으로 인하여, 한국인을 ‘코렐리’(Koreli)라고 부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문제발생시 적극 도와주려 한다. 전통적으로 체면과 무예를 존중하며, 매우 정열적이고 다혈질이나 서두르지 않으며, 신앙의 전사라고 불리는 가지(Gazi)의 정신을 윤리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터키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다.

III 주요 연수 결과

주요기관 방문

1. 이스탄불 한국전 참전 용사회 공식 방문

- 방문일시 : 2013. 1. 29. (화) 15:00
- 방문장소 : 이스탄불 내 한국전 참전 용사회
- 방문인원 : 6명(의원4, 직원2)
- 방문내용 : 참전용사회 회장의 참전용사회 설명(다과) 및 기념품 전달
- 방문 주요내용
 - 1953년도에 젊은 나이로 6.25한국전에 직접 참전한 80세~90세의 고령 참전용사들을 만날 수 있었음.
 - 한국전 참전 용사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담소를 나누었고 그날의 참전소감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음.
 - 그중, 한 참전용사(86세)는 “처음에는 내가 왜 한국전에 참가하기 위해 32일이란 긴 시간동안 배를 타고 머나먼 이국땅 한국에 까지 가서 전쟁에 참가했을까?!”라며 후회를 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그래도 전쟁에 참가하길 잘했다고 하시며 자랑스럽게 1953년도 참전당시의 젊었을때의 사진을 보여주었음.
 - 또한, “그래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함.
 - 권태진 부의장님은 우리 국민들은 터키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청춘을 바친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한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감사의 마음과 당부를 전달함.

○ 방문기념 사진



2. 이스탄불 양로원 견학

○ 방문일시 : 2013. 1. 30. (수) 10:00

○ 방문장소 : 이스탄불 내 다오르제제 양로원 (공립)

○ 방문인원 : 6명(의원4, 직원2)

○ 방문내용 : 관장의 입소시설 기본현황 설명, 시설 라운딩, 기념품전달

○ 방문시설 주요현황

- 명 칭 : 다오르제제 양로원(공립)
- 위 치 : 이스탄불
- 수용인원 : 110년 동안 7만 1천 여명 수용
- 입소인원 : 550명
- 입소대상 : 노숙자, 부랑자, 고아 등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입소가능
- 종 사 자 : 의사 13명, 간호사 45명, 자원봉사자 408명
- 협력병원 : 200여개
- 입소시설 : 4개동의 건물 (옛날 이슬람 사원 과 교회건물 리모델링)

○ 방문 주요내용

- 이스탄불의 다오르제제 양로원은 명칭은 양로원이지만, 어린아이(고아) 및 청년, 외국인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홈리스(Homeless)를 위한 무료 보호시설이며 그들의 안정적 삶을 위한 급식과 숙식 등이 제공됨. 또한, 입소자들에게 재활 및 여가선용을 위한 재활용품 작업장을 운영하여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재활을 돕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여 퇴소하기 전까지 자율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 등 선진복지시설의 면모를 엿볼 수 있음.

○ 방문기념 사진



3. 앙카라 직업훈련소 견학

○ 방문일시 : 2013. 1. 31. (목) 10:00

○ 방문장소 : 앙카라 내 PLANET 직업훈련소(시립)

○ 방문인원 : 6명(의원4, 직원2)

○ 방문내용 : 소장의 시설 기본현황 설명, 시설 라운딩, 기념품전달 및 다과

○ 방문시설 주요현황

- 명 칭 : PLANET 직업훈련소(시립)
- 위 치 : 앙카라
- 교육인원 : 700명
- 강좌종류 : 17종(모자이크, 켈트, 도자기, 그림, 페이퍼 공예 등)
- 교육대상 : 15세~80세 여성
- 교 육 비 : 무료 (재료비 별도)
- 시 설 : 지상3층으로 유리벽으로 되어있어 수업장면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2층에는 자녀를 위한 놀이시설이 있음

○ 방문 주요내용

- 앙카라 직업훈련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직업훈련시설이며, 각 강의실 벽이 전면 유리로 되어있고 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시설내부와 강의실 전반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 특히 2층의 자녀 놀이모습을 보면서 3층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열린공간 구조형식이 인상적이었음.
- 우리시의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원, 복지관과 같이 경력단절을 위한 취업·창업을 위한 지원과, 여가선용을 위한 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여성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편의시설로 쾌적한 공간이 선진복지시설로 보여짐.
- 강사들의 친절한 환대로 직접 구운 파이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었음

○ 방문기념 사진



역사 유적지 현장견학(시찰)

1. 이스탄불 역사유적지

- 견학일시 : 2013. 1. 29. (화) ~ 1. 30.(수)
- 견학장소 : 히포드롬, 블루모스크, 성소피아, 지하물 저장고,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 톱카프 궁전
- 견학인원 : 6명 (의원4, 직원2)
- 견학(시찰)내용

히포드롬

- 새벽에 이스탄불 도착 후 첫 번째 견학장소
- 블루 모스크 서쪽의 광장으로 3세기 초에 건설된 비잔틴 제국의 마차경기장이었던 곳으로 말이 끄는 전차의 경기가 펼쳐졌던 곳이다.
광장에는 3개의 오벨리스크(기념비)와 둥근 지붕의 체슈메(샘)이 있고, 비잔틴의 유물로 가득한 곳이라 함.
- 중앙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테오도시우스 신전에서 가져온 것이며, 청동 뱀상은 기원전 479 년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를 격퇴한 전승기념으로 그리스 델피의 이폴론 신전에 세워져 있던 것을 콘스탄티노폴을 약탈하던 중 벗겨져 기념주화로 만들어 졌으며, 히포드롬에 있던 4개의 청동 말상은 베너체아로 가져가 산마르코 성당의 입구를 장식하고 있다고 함.
- 새벽이라 한산하고 약간의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운치 있었음.

○ 견학(시찰) 사진



❖ 블루 모스크 (Blue Mosque)

- 히포드롬에 이어 두 번째 견학장소인 블루모스크는 성 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있으며 본래의 이름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 한다.
- 1616년 7년간의 기간을 거쳐 술탄 아흐메트 1세가 성 소피아 성당을 능가하는 이슬람 사원을 짓기위해 만든 터키의 대표적인 모스크로서 6개의 첨탑과 내부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터키블루 색상의 약2만여장이 넘는 타일장식으로 “블루모스크”라는 애칭으로 유명해 졌으며 이슬람의 중요 종교행사와 집회들의 공식행사를 치루던 곳으로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공식방문한 곳이라고 함.
- 푸른타일의 화려한 장식뿐만 아니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장식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조명을 위해 천정에서부터 길게 내려온 쇠줄이 많아 다소 블루모스크 내부의 멋진 장식을 방해하는 듯 보임
- 이슬람 교도들은 사원에 들어가기전에 손, 발, 얼굴 모두 깨끗이 씻고 들어가 경건하게 예배를 보았다고 하며, 일반 관광객은 모두 신발을 벗고 들어감.

○ 견학(시찰) 사진



☒ 성 소피아 성당 (Hagia Sophia)

-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로 6세기에 만들어진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건축의 최고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 원래 명칭은 Hagia Sophia로 ‘신성한 예지’를 뜻하며 그리스정교의 총본산으로,
- 오스만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건축 후 900여년간의 그리스도교 성당이었던 성소피아를 이슬람의 모스크로 전환하여 1935년까지 사용했는데, 지금 볼 수 있는 건물주위의 침탑은 이때 건립되었고, 성당안에 있던 많은 모자이크는 회칠로 감춰버렸다.
-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회칠을 벗기며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 성 소피아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건립이전에는 세계 최대 성당이었으며, 뛰어난 건축양식으로 현존하는 세계7대 불가사의로도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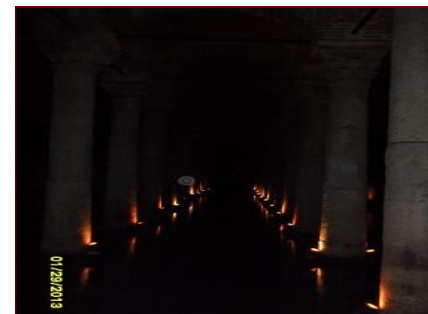
○ 견학(시찰) 사진



☒ 지하물 저장고

-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 저장고인 에레베탄 저장고이며, 6세기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때 궁전과 성 소피아에 식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스탄불 외곽에 있는 숲에서 수도교를 통해 끌어와 약 8만톤의 물을 저장해 놓았던 곳으로 그 규모가 대단해 지하를 궁전이라 불리우며, 336개의 서로 다른 신전에서 가지고온 각기 다른 기둥이 받치고 있는 신비스러운 곳이기도 하며, 기둥 중에는 메두사의 머리가 거꾸로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도 있음. 현재도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고 물고기의 모습도 볼 수 있다.

○ 견학(시찰) 사진



이 스 탄 불 고고학 박물관

-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세계 5대 고고학박물관에 속하는 곳으로, 톱카프 궁전 안에 있다. 1891년 오스만 제국 시기에 세워진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 헬레니즘 시대부터 그리스·로마시대까지의 조각과 석상을 주로 소장하고 있으며, 고고학 박물관, 고대 동양 박물관, 타일 키오스크 박물관 등 3개의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박물관은 정원을 둘러싸고 있다. 이 박물관에는 이스탄불과 인근지역, 로마, 그리스 유물 등 고고학 자료들이 100만 점 이상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탄불 지역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헬레니즘, 로마, 비잔틴 문명이 교차했던 지역인 만큼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 고고학 박물관은 2개 층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지하층에는 『알렉산더 석관』 등 유명한 석관들을 비롯해 로마시대의 『사포의 두상』, 헬레니즘시대의 『마르시아스 상』 등 고대부터 로마시대까지의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1998년에 문을 연 새로운 빌딩에 있는 ‘이스탄불 주변의 문화’ 전시 공간에는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비티니아와 비잔티움 등 다양한 시대의 고고학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나톨리아와 트로이 유물, 시리아, 팔레스타인, 키프러스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새 빌딩 1층에 전시되어 있다.
- 고대 동양 박물관에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아랍반도 등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7만 5000여 개의 쉐기문자판도 소장하고 있다. 타일 키오스크 박물관에는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셀주크와 오스만 시대의 기와, 타일장식, 도자기 등 예술품 2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 한가지 아이러니 한 것은 터키지역의 고고학 발굴을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1881년 이전에 출토된 것들은 모두 두 나라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그 이후에 출토된 것들만 이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견학(시찰) 사진



☐ 톱카프 궁전

- 톱카프 궁전은 1453년 오스만제국의 메흐메드 2세에 의해 건설을 시작하여 1467년인 메흐메드 2세 때 완공된 궁전이다. 오스만제국 때 술탄들의 거처로 쓰인 톱카프 궁전은 거주하는 시종과 군사, 관료의 수만 5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톱카프 궁전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보스포루스 해협의 높은 평지에 위치해 있으며 그 내부에는 4개의 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원에는 바그다드 코슈큐, 이레네 교회 등이 들어서 있고 술탄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전시실도 갖추어져 있다. 예전에 주방으로 사용했던 자리는 현재 도자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시된 도자기 수가 무려 12,000여 점이나 된다. 이 밖에도 박물관에서는 술탄이 사용하던 왕좌, 생활도구, 장식품 등과 보석으로 장식된 다양한 장식품을 볼 수 있다. 제2정원에 자리한 하렘은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여성들만이 출입할 수 있다. 하렘의 모든 창에는 철창이 달려 있는데 이는 외부의 침입과 여자 노예의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 견학(시찰) 사진



2. 앙카라 역사유적지

- 견학일시 : 2013. 1. 31. (목)
- 견학장소 : 소아시아(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 아타튀르크 기념관(영묘), 한국공원(6.25참전 터키기념탑)
- 견학인원 : 6명 (의원4, 직원2)
- 견학(시찰)내용

☐ 수도 앙카라

- 터키의 수도 앙카라의 면적은 3만 715km²이고 인구는 400만 명이며, 해발 8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앙카라(Ankara) 및 주변 지역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히타이트(Hittite)인, 프리기아(Phrygia)인, 리디아(Lydia)인들이 앙카라를 거쳐 갔다. 앙카라라는 지명은 켈트족(Celts)의 한 부류였던 갈라트(Galette)인들이 안키라(Ankyra)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BC 7세기와 8세기경, 이슬람의 전파와 함께 앙카라는 페르시아(Persia)인, 아랍(Arab)인들이 정복하였다.
- 1127년 터키인들이 앙카라를 완전히 정복한 다음 엔귀리에(Enguriye)라고 명명했다. 1402년 몽골의 침입으로 잠시 동안 앙카라를 빼앗겼으나, 이후 1414년 오스만 제국이 앙카라를 정복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전쟁 당시 1920년 앙카라는 해방전쟁의 중심이 되었으며, 1923년 케말 파샤(Kemal Pasha)에 의해 수도가 되었다.
- 앙카라의 시장은 투표로 뽑으며 임기는 5년이다. 2012년 현재 시장은 멜리 곱첵(Melih Gokcek)으로 정의개발당 출신이다. 시의회는 민선이고, 임기는 5년의 108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연 3회 개최한다. 시의회에서는 시의 예산승인, 세액결정, 도시계획과 공공사업 승인 등을 한다.
- 주지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경찰과 시장이 결정한 예산 및 계획의 수정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 **아나톨리안 문명박물관(Anatolian Civilizations Museum)**

- 아나톨리안 문명박물관은 전형적인 오스만 제국 시대 건축물로서 1464년~1471년에 마흐무트 파샤(Mahmut Pasha)가 건축하였다.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중앙에 10개의 돔이 있는 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곳은 1938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원작업을 시작하여 1968년 현재의 박물관 형태로 완공되었다.
- 히타이트 박물관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대상인의 저택이었으나 15세기에 귀금속 시장으로 쓰였던 건물에 들어서 있다,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비잔틴 시대까지의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한다.
- 오늘날까지 아나톨리아(Anatolia) 지역의 조각품, 벽화, 수공예품, 동상 등의 유물이 연대순,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또한 케말 파샤(K드미 Pasha)에 의해 각처에서 발굴된 많은 히타이트 시대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 특히 히타이트족의 유물이 전시되는데, 히타이트족은 철로 만든 무기를 인류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타이트의 석상과 청동 디스크, 숫사슴과 소 형상, 태양의 원판 등 흥미로운 전시물이 있다.

○ 견학(시찰) 사진



☐ **케말 아타튀르크(Kemal Atatürk)기념관**

- 케말 아타튀르크 기념관의 면적은 65만 8,000㎡(19만9,000평)이다. 터키 공화국의 국부인 케말 아타튀르크(케말 파샤의 다른 이름)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으며, 앙카라(Ankara) 시내를 내려다보는 가장 높은 언덕에 있다.
- 1924년 에민 오나트(Emin Onat), 오르한 아르다(Orhan Arda)가 피타이트와 고대 아나톨리안(Anatolian) 건축양식을 혼합하여 설계하였다. 1944년 착공되어 1953년 완공되었다. 1953년 11월 10일 앙카라 민속박물관 안에 있던 케말 아타튀르크의 유골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 케말 아타튀르크의 기념관은 폭 30m, 길이 260m의 입구 도로, 승리광장, 케말 아타튀르크 시신이 안치된 명예의 전당과 케말 아타튀르크 생존 시 기증받은 선물, 사용하던 자동차, 유품을 전시한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예의 전당은 2층 형태로 실제 아타튀르크의 관은 지하층에 있으며, 방문객들은 지상층에서 참배하도록 되어 있다. 터키 정부가 초청한 국민은 앙카라 방문 시 이곳을 참배하는 것이 관례이다.

○ 견학(시찰) 사진



【케말 아타튀르크】

· 본명은 무스타파 케말(Mustafa Kemal)이며 케말 파샤라고도 한다. 아타튀르크란 ‘터키의 아버지’를 뜻하는데, 1934년에 대국민의회(터키의 국회)에서 증정한 칭호이며, 파샤는 군사령관·고급관료에게 보내지는 칭호이다. 무스타파 케말은 1881년 3월 12일 오늘날의 그리스 살로니카에서 터키 세관관리의 아들로 태어났다. 12세부터 군사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는 1904년 이스탄불에 있는 하비에르 육군 참모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군사학 뿐만 아니라 수하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수학교사로부터 안벽함을 뜻하는 “케말”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것을 자신의 정식 이름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스탄불에서 군사교육을 받는 동안 청년 터키당운동에 열성적으로 가담했다. 이 운동은 터키의 청년장교들로 구성된 정치단체로,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전제왕정인 술탄제를 폐지하고 터키 민족주의와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급진적이며 혁명적인 정치 운동이었다. 이러한 정치운동에 가담했던 무스타파 케말은 고급장교임에도 불구하고, 1905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변방지역인 시리아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인정받아 1911~12년 이탈리아-터키 전쟁 때 소령 계급으로 참전했으며, 소피아의 주재무관에서 북아프리카의 뱅가지 방면으로 전속되어 활약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12~13년의 발칸 전쟁 때에는 군사령관으로서 다르다넬스 해협과 동부국경의 방위를 맡아 공훈을 세웠다. 1915년 무스타파 케말은 대령 계급으로 갈리폴리 반도의 로도스토 지역에서 제19사단의 지휘를 맡았으며 1915년 4월 25일부터 시작된 영국군의 갈리폴리 반도 상륙작전을 격퇴하는 반격전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때의 경력으로 정부는 그를 장군으로 특진시켰으며, 제16군단 사령

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1916년까지 아나톨리아 방위에서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연달아 승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대가 독일군의 지휘를 받는 데에서 항상 느꼈던 불만을 터뜨렸으며, 그의 언동에 분노한 전쟁장관은 1917년 무스타파 케말을 군단장직에서 해직, 병가장군 위치로 격하시켰다. 비록 1년 뒤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현역으로 복직되어 팔레스타인 지역 주둔 제7군 사령관직을 맡았으나 연합군의 수적 우세에 압도되어 후퇴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붕괴하자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만의 독립을 서취하고자 노력했다. 오스만투르크 제국 내에 존재하는 민족적·종교적 다양성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로 독립하기 위해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를 그들만의 공통유산에 기초한 국민국가로 단결시키는 방향으로 독립절차를 개시했다. 전후 이스탄불과 마르마라 해변의 이즈미트, 에게해를 연하는 이즈미르 등지가 1919년 2월 연합군에게 점령당하자 무스타파 케말은 조국의 구제에 났고, 1919년 5월 흑해 연안의 삼순항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갔다. 8월에는 에르주룸에서 ‘국민의 제권리를 수호하는 동방 제주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시바스에서 민족항전의 협의를 거듭하였다. 이듬해 1월에는 앞으로의 대외정책의 기본강령이라고 할 ‘국민맹약’을 선언했고 4월 앙카라에 ‘대국민회의’를 개설하여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8월 술탄정부가 연합국으로부터 세브르조약을 강요당하자 민족독립전쟁을 일으켰으며 1921년 8~9월에는 앙카라를 향해 진격하는 그리스군을 사카리아 강변에서 격퇴하였다. 무스타파 케말은 1920년 마침내 앙카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2년간 군사작전을 진두지휘하여 그리스 점령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후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나서 1922년 11월에 술탄제도를 폐지하고 이듬해 7월 연합국과의 사이에 새로 로잔조약을 체결하였다. 10월 앙카라를 수도로 정한 공화제를 선

포하고 29일에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인민공화당을 창설하여 정당정치를 확립하였다. 그는 재임기간동안 개혁과 개방에 몰두했으며, 이슬람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1925년에는 이슬람 전통 복장이 폐지되었으며, 남녀의 합동 교육이 실시되었다. 1926년에는 새로운 민법이 제정되어 일부일처제를 비롯한 남녀평등권이 도입되었다. 1928년에는 아랍 문자의 사용이 폐지되고 로마자로 터키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고안되었으며, 1930년에는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그는 신생 터키 공화국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명제 아래 서구식 법치와 민주적 정치제도로 현대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터키 국회는 1934년 무스타파 케말에게 조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타튀르크’칭칭을 수여했다 그는 평생 조국독립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재임중이던 1938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앙카라 한국공원(6.25참전 터키기념탑)**

- 터키에 있는 한국공원은 1971년 8월 서울-앙카라(Ankara)사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앙카라 시내 중심부에서 약 1km 지점에 있으며 면적은 1만230㎡(약 3,100평)이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741명의 터키군 용사의 영혼을 안치한 한국참전 추모탑과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육각형의 정자로 구성되었다. 육각정은 현재 관리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 서울대 안병익 교수가 설계한 한국전 참전 기념관은 높이가 9m인 4층 탑으로 1972년 8월 23일 착공되어 1973년 11월 5일 준공되었고, 육각정은 1977년에 건립되었다. 한국공원에서는 매년 한국전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헌화를 하고 있다.
-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들도 헌화와 참배를 하며 추모하였다.

○ 견학(시찰) 사진



3. 카파도키아 고대 자연유적지

- 견학일시 : 2013. 2. 1. (금)
- 견학장소 : 데브렌트계곡, 파사바계곡, 우치히사르, 고티메 야외 박물관,
지하도시 데린쿠유
- 견학인원 : 6명 (의원4, 직원2)
- 견학(시찰)내용

☐ 카파도키아

-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남쪽으로 300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카파도키아는 로마의 동맹국이었으나 차차 속국, 속주로 독립성을 잃어 갔다. BC 6세기의 문헌에 의하면 당시 카파도키아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조로아스터교가 널리 퍼져 있었다. 카파도키아는 BC 190년 로마가 마그네시아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셀레우스 왕조의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는 로마에 충성을 바쳤으며 11세기까지 동로마제국의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실크로드의 중간거점으로 동서문명의 융합을 도모했던 대상들의 교역로로 크게 융성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로마시대 이래 탄압을 피하여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곳에 몰려와 살았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수천 개의 기암에 굴을 뚫어 만든 카파도키아 동굴수도원이 남아 있다.
- 마치 동화속에서나 볼수 있을듯한 갭깁이 버섯 모양의 기암괴석들이 드넓은 계곡지대에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원뿔을 덮어 놓은 듯한 용암층 바위속에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삶

의 터전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 수백만년전, 활화산이었던 예르지에스산(3917m)등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인해 형성된 이곳의 지형은 오랜세월을 걸쳐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켜 부드럽고 쉽게 깎이는 습성을 지닌 응회암지대로 바뀌게 되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이들의 거주 공간은 덥고 건조한 기후를 피할 수 있음과 동시에 데린구유라고 불리는 지하도시와 마찬가지로 쉽게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아 종교탄압시기에 기독교인들의 훌륭한 피난처가 되었다. 이러한 응회암 집의 입구는 지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훑길 수 있는 사다리나 밧줄을 통해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지형은 이 지역 거주민에게 더없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지형을 이루고 있는 응회암은 암석이라고는 하나 쉽게 깎이는 탓에 거주공간이 좁다고 생각될 경우 주변의 돌을 더 파내기만 하면 되었을 뿐 아니라 돌로 만든 집은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그리고 겨울에는 한파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이다. 지하도시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버섯집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이외에도 교회와 지성소, 사원들을 만들어 냈다. 오늘날까지도 카파도키아에는 6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보존되어 있고, 이중 최고 오래된 것은 7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들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회화들은 비잔틴 예술의 보고라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유산이다.



4.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고대도시

- 견학일시 : 2013. 2. 2. (토)
- 견학장소 : 히에라폴리스 도시유적(파묵칼레)
- 견학인원 : 6명 (의원4, 직원2)
- 견학(시찰)내용

📍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

- 고대명 히에라폴리스(Hierapolis), 소아시아 서남부의 온천도시로, 고대 도시의 유적이 있다. 면(綿, 파무크)의 성(城, 칼레)이란 지명은 이 도시 앞면의 절벽을 덮는 흰 중유석과 같은 온천의 분출이 장관인 것에서 연유했으며, 페르가몬의 왕(에우메네스2세)이 창건한 것이라 전하나, 유구는 거의 로마시대 이후의 것이다. 대욕장(2세기), 로마극장(2세기)과 열주도로에 면한 아폴로 신전(3세기), 니파에(4세기), 교회당(5세기 초) 등 흥미있는 건축들이 있다. 시의 북방 약 2km에 걸쳐 모지가 있고 100을 넘는 투물루수(tumulus,분묘), 석관, 집모양의 묘가 있다.
- ‘목화의 성’을 의미하는 파묵칼레는 단층을 뚫고 나오는 온천수의 칼슘 퇴적물이 형성한 독특한 지형지물들로 만들어진 진귀한 광경 때문에 터키인들이 붙인 이름이다. 광물의 숲, 석화폭포, 거대한 천연 휴게실의 단층 연못 등이 바로 그러한 광경에 포함된다.
- 히에라폴리스의 파묵칼레(Hierapolis-Pamukkale)는 자연 현상을 통해 멋진 경관이 형성된 유적이다. 샘들에서 광물화된 온천수가 넘쳐흘러 형성된 못과 계단 형태 지형의 멋진 자연 경관 속에 훌륭한 그리스-로마식 온천시설을 갖춘 히에라폴리스가 구성되어 있다. 히에라폴리스의

기독교 기념물들은 초기 기독교 단지의 우수한 사례이다.

- 뜨거운(섭씨 35℃)물이 지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유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고대인들은 2세기 후반에 이곳에 온천을 만들었다.
- 히에라폴리스의 역사는 소아시아반도의 다른 많은 헬리니즘 도시들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기원전 129년에 로마인들에게 점령당한 히에라폴리스는 새로운 통치자들 아래에서 번영했다. 이곳은 아나톨리아인, 마케도니아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뒤섞여 지내는 ‘국제 도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온천으로 와서 물을 가져갔는데, 이 물은 양모를 씻고 염색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 온천수의 치유력은 거대한 온천수 분지와 수영장 등 다양한 온천 시설을 통해 활용되었다. 물을 이용한 치료법이 지역 신앙의 맥락에서 발달한 종교 관습과 더불어 생기기도 했다. 유해한 증기가 발생하는 단층 위에는 아폴로 신전이 세워져 있다. 세베루스(Severus) 시대에 만들어진 극장은 에베소스(Ephesos)의 아프테미스(Artemis)에게 바치는 의식과 희생 제물을 묘사한 멋진 프리즈(frieze)로 장식되어 있다. 대형 공동묘지는 그리스·로마시대의장례풍습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히에라폴리스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사도 빌립보(Philip)가 87년경에 도미티아누스(Domitian, Domitianus) 황제에 의해 이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한다.

○ 견학(시찰) 사진



5. 에베소 로마시대 유적지

○ 견학일시 : 2013. 2. 3. (일)

○ 견학장소 : 원형극장, 셀수스 도서관, 시장터, 대리석 도로, 목욕탕,
아르테미스신전, 하드리아누스 신전

○ 견학인원 : 6명 (의원4, 직원2)

○ 견학(시찰)내용

☐ 에베소

- 에베소는 기원전 1500~1000년 사이에 처음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아테네 왕자 안드로클로스의 지휘하에 그리스의 이주민들이 아나톨리아에 처음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현인들에게 그들의 새도시가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현인들이 예언하기를 야생 멧돼지 한 마리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들을 새도시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어느날 야외에서 안드로클로스가 생선을 굽다 그중 한 마리가 팬에서 미끄러져 가까운 숲속으로 떨어졌고 이와 함께 튀 불뚱이 숲에 번지자 사나운 멧돼지를 쫓아 죽이고 바로 그 자리, 즉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서쪽으로 1200미터 떨어진 고대 에베소가 있던 곳에 그들의 새도시를 세웠다. 기원전 7세기, 에베소는 키메르인에 의해 아르테미스 신전을 포함하여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후 이곳은 그리스의 참주들에 의해 다스려졌다. 기원전 6세기경 에베소는 리디아왕국의 군주 크로이소스의 지배를 잠시 받긴 하였으나 곧 페르시아에 정복되었고 다시 알렉산더 대왕의 손으로 넘어갔다. 아나톨리아 지방을 지나가던 알렉산더 대왕은 크로이소스에 의해 재건된 아르테미스 신전의

아름다움에 빠져 이 곳을 정복, 에베소는 평온을 되찾고 융성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리시마쿠스는 피온산과 코레쑌스산 중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이 곳을 높이 10미터, 총 길이 9km의 성벽으로 요새화 시켰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원형극장, 경기장과 체육관 등의 유적은 이 당시 지어진 것이다.

- 기원전 86년, 에베소인들은 폰티스와 연합하여 로마인들에게 대항하였으나 로마의 세력 팽창이 엄청날 것을 알아차린 에베소인들은 곧 로마 편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에베소는 로마의 동맹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제국 아시아속주의 수도로 부상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곳은 거대 항구가 있는 아시아 무역항로의 종착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번영도 서기 17년에 일어났던 대지진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폐허로 변하였다. 교회 역사에서 에베소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제자 사도 요한과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도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바울로 인해 복음이 왕성히 전해지고 있다는 에베소로 오게 되었다. 에베소에 도착한 요한과 마리아를 위하여 에베소 성도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바오로2세가 성모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신성하고 중요한 곳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곳은 카톨릭 교회의 성지로 지정되었다.
- 터키 이즈미르의 남서쪽 약50Km지점으로 양항을 끼고 상업중심지로 발전했다. BC620년경 이곳에 세워진 아르테미스신전은 소아시아에서 그리스에 이르는 지역에서 많은 순례자를 끌어 모았다.
- 이곳은 BC7세기~BC6세기가 최성기로서, BC6세기 후반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부터 쇠퇴하기 시작, 페르시아 전쟁으로 해방이 된 뒤에는 그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 대왕 원정 뒤 헬레니즘시대에 이르러 경이롭게 부흥하였다.

- 1세기 성 바울로는 이곳에 그리스도교를 전하였으며 또한 로마에서 이 지방 신자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오늘날 이 도시의 폐허에서는 수많은 유적이 발굴된다.

○ 견학(시찰) 사진



6. 트로이 유적지

- 견학일시 : 2013. 2. 4. (월)
- 견학장소 : 아이발록의 트로이 유적지
- 견학인원 : 6명 (의원4, 직원2)
- 견학(시찰)내용

☐ 트로이 유적

- 트로야트로이아라고도 한다. 호메로스 《일리아스》《오디세이아》에서는 일리오스라고 불렀다. 스카만드로스강과 시모이스강이 흐르는 평야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근대에 와서는 히사리크라고 불렀다)에 있다. 바다에서 6Km정도 떨어져 있어 바다로부터의 습격을 받을 위험은 적었다. 그러나 바다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에게해와 흑해를 잇는 헬레스폰투스(다르다넬스 해협)의 입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곳에 있어, 예로부터 번영을 누려왔다.
- 독일 고고학자 슐리만이 1870년부터 이곳을 발굴하면서 유적이 밝혀졌다. 유적은 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하층은 BC4000년 말기의 것으로, 성벽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제2층에는 메가톤식의 왕궁으로 짐작되는 건물이 있고, 이 층에서 많은 금,은 제품을 발견하였으며, 이 층을 호메로스 시대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 슐리만은 이때 발굴한 유물들을 독일로 밀반출, 1881년 베를린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찬란했던 트로이문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1945년 베를린을 점령한 소련은 이를 탈취, 금,은 보물은 모스크바 푸시킨미술관에, 도자기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슈 미술관에 소장하

다가 1995년 4월 푸시킨미술관에서 다시 전시되었다. 그러나 그후 슐리만을 도운 독일의 고고학자 되르프펠트는 아래에서 제6층에 해당하는 곳이 호메로스 시대의 것이라고 하였다(BC 15 ~BC12) 1930대에 와서 미국의 블레젠이 다시 조직적으로 발굴하여 한 층 위인 제7층 A를 호메로스시대의 것이라고 수정하였다. 제7층 B는 철기시대 초기, 제8층은 그리스인이 이민한 아르카이크시대의 것이며, 맨 위층인 제9층은 헬레니즘시대 및 로마시대의 유적으로 이 무렵 도시는 일리움이라고 불리었다. 이 시대에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원정 도중에 일부러 이곳을 들렀다.

○ 견학(시찰) 사진



IV 연수요약 및 성과

- 이번 연수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 위치에 있는 터키의 공공시설·도시 기반시설과 자연·문화·역사유적지 등의 견학(시찰)을 통해 우리시 공공시설과 문화유적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추진된 해외연수이다.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적 위치에 있는 터키는 로마, 비잔틴제국, 오스만제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거쳐간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현재의 터키공화국은 인구 7,974만명, 면적 783,562km², GDP 8,172억불로 세계 17위로서 면적은 우리나라의 3.5배 이상이나 GDP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5위와 비교해 볼때 비슷한 경제 수준의 나라로 1950년 7월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고 한국전에 참전함으로써 한국과의 형제의 나라로 혈맹 우방국으로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있는 국가이다.
- 터키 최대의 도시로 보스포러스 해협의 양쪽에 걸쳐있어 유럽과 아시아의 양 대륙에 속해있는 이스탄불의 역사유적지 히포드룸(비잔틴제국의 마차경기장), 6개의 침탑과 터키블루 타일의 화려한 장식이 있는 블루모스크, 비잔틴제국의 최고절작품이며 세계7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성 소피아성당, 지하 궁전이라 불리는 지하물 저장고, 세계5대 고고학 박물관에 속하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오스만제국의 15세기 보석궁전인 톱카프궁전 등 이스탄불은 그야말로 커다란 역사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도시로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수많은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관광객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터키의 수도 앙카라의 아나톨리안 문명박물관과 터키 공화국의 국부인 케말 아타튀르크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아타튀르크 기념관, 한국전에서 전사한 741명의 터키군 용사의 영혼을 안치한 한국참전 추모탑이 있는 터키속의 ‘한국공원’ 터키의 앙카라에서 우리의 글로 되어있는 한국공원을 방문할 당시 뭔가 가슴이 찡해짐과 의원들의 헌화와 참배로 추모를 할 수 있는 가슴 뭉클한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 터키의 그밖에 가파도키아 등 고대자연 유적지 테브렌트계곡과 파샤마 계곡, 괴레메 야외박물관, 지하도시 데린쿠유, 유테스코 지정 문화재 고대도시인 히에라폴리스 도시유적 파묵칼레, 파묵칼레는 한마디로 자연이 빚어 놓은 최고의 결정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목화숨처럼 새하얗게 빛나는 석회층과 그 위로 흘러내리는 온천물이 만들어 내는 경관은 한마디로 장관이었다.
- 고대로마의 유적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에페소에서는 로마의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가 있었으며 로마제국 당시 아시아의 수도를 에베소로 옮겨 건축문화의 전성기를 구가한 현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에베소에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로마를 대도시로 성장시켜 놓은 바로 그 현장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다. 그밖에도 신화와 현실이 만나는 차낙칼레의 트로이 유적지 등 역사와 신화와 자연의 신비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터키의 역사유적지는 세계를 지배한 3대강국인 로마, 비잔틴, 오스만제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도 도시 곳곳에 과거 번영의 흔적들을 잘 보존해 놓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 이스탄불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회』의 공식방문을 통해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며 피를 함께 흘려준 한국전에 참전한 터키군 2만 2950명의 뜻깊은 희생에 감사하고, 우리 또한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또한 이스탄불에 있는 『다오르제제 양로원』의 공식방문은 남녀노소, 부랑아, 고아, 외국인, 장애인 등 누구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면 입소가 가능한 사회적 절대약자의 보호시설로 자원봉사자들과 의사 간호사들의 관리를 통한 재활훈련 및 독립적 객체로서 자발적 퇴소가 이뤄지는 무한 사회보장시설이 있다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로 가야하는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하고 해결해 가야할 숙제인 것 같다.
- 아쉬운 점이려면 이번 연수일정 중 터키 이스탄불 시청(국제협력과)를 공식 방문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연수준비기간이 짧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방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직접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추후 국외연수 계획 수립시에는 이점을 참고하여 직접 Contact 할 때 충분한 일정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지방자치시대 지방의원의 다각적인 견문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 및 터키의 문화와 행정제도, 역사유적지 보존 정책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